Meet yourself!

(너의 진면목을 만나라!)

중도, 마음 작용과 반작용의 조화 (下)



붓다는 중도를 발견한 사상가이며 동시에 0을 발견한 대수학자이다. 서기 6세기 인도에서 0이 발견될 때 무명인(無名人)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원전 6세기 공(空) 사상이 천년 후 0으로 변신했다는 반증(反證)이라고 대수학자이셨던 김용운(金容雲) 교수께서 2003년 필자에게 서신으로 밝혀주셨다. 따라서 불교의 교의(教義)는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육바라밀(六波羅蜜), 팔정도(八正道), 108번뇌 등 숫자로 되어있다. 삼법인(三法印)의 인(印)은 믿을 수 있는 3가지의 진리라는 뜻이다. 오늘날 인감(印鑑)도장의 신뢰성 같은 것이다.

무한대(無限大)인 겁(劫)과 찰나(刹那) 같은 극단적인 불교의 시간 설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금강경의 교의가 무아(無我)라면 화엄경은 자아(自我)의 발견이다. 무아는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자아발견의 충격요법인 셈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속세(色)가 곧 천국(空)이다. 어느 진보적인 불교학자의 해석이다. 인생은 가까운 미래의 일을 모르는 현재완료 형의 삶이다. 인도는 고대에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창제한 언어 선진국답게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도 간단하게 소통이 가능한 원시언어는 있었던 듯하다. 어느 날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낙서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데서 추론해보았다.

제자가 질문했다. "사후(死後)의 서방정토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붓다는 답했다. "아궁이에서 나무가 다 탔을 때 연기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겠느냐?"

제자의 답은 이렇다. "꺼진 후 아궁이에 재만 남습니다."

한편, 훗날 같은 질문에 육조혜능은 "극락에 사는 서방정토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했다.

나는 이 글의 스승과 제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교수와 제자가 편안한 사은회(謝恩會) 같은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상상해보았다. 즉 강의시간에서 듣지 못한 쉬운 내용인데 오히려 더 감명 깊은 말씀으로 평생 간직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불교사회의 풍토에서 살았음에도 뜻밖에 내세(來世)에 대한 속담이 단 한 편도 없다. 오히려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처럼 현생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나에게 불교를 눈뜨게 해주신 어른은 현 BTN 불교TV 회장이신 석성우 대종사다. 내게 일자관(一字關)인 염(念)자 화두를 내려주셨다. 염(念)을 풀이하면 지금(今)+마음(心), '제로 마인드(Zero mind)'이다. 사람들의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생긴다. 지금이 모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 금생(今生)이 되는 것이다. 날짜의 0인 오늘에서 '(-)1'은 '어제'요, '(+)1'은 '내일'이다. 오늘은 말기 환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요 내일의 씨앗이다. '오늘'은 '오!(감탄사)'와 '늘(항상)'로 오늘 속에 영원이 있다. 영원은 특별한 미래가 아닌 '오늘'을 닮은 '내일'일 뿐이다. 인생은 오늘의 반복으로 오늘은 위대하다. 오늘 하루는 짧은 일생이다.

불교의 정수(精髓)인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전법륜(初轉法輪)과 108번뇌의 계산과정을 통해야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인도는 붓다의 공(空)사상이 수학 세계에 0으로 편입되면서 눈부신 과학의 강국(强國)이 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인도의 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도 과학적이었다. 붓다의 첫 설법인 사성제(四聖諦), 고(苦)·집(集)·멸(滅)·도(道)에서 고(苦)라는 병이 생겼을 때 '눈·귀·코·입·몸·마음'에서 일어난 욕망 때문에 집(集)이라는 진단 결과 이는 금강(金剛)몽둥이로 벼락처럼 한방에 내려쳐 소멸(消滅)하라는 지혜의 처방이다. 따라서 〈금강경(金剛經)〉을 일명 '벽력경(霹靂經)'이라고도 했다. 붓다는 득도하신 후 더 이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수행의 제1막을 마치신 셈이다. 이를 이고(離苦)의 수행단계라고 한다. 붓다께서 득도하신 후 더 이상의 깨달음은 구하지 않는다는 선언(宣言)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 붓다가 아닌 붓다 말씀을 믿는 종교

'자등명 법등명' 유훈 붓다 가르침의 진수

여름 겨울 거쳐야 '중도의 봄·가을' 느껴

중도, 일상생활서 보통의 맛 음미하는 행복

圓에 만족하는 삶이 圓滿한 인생이 아닐까

이제 수행의 제2막부터는 애벌레에서 해탈한 나비같이 갖가지 꽃으로 장엄(莊嚴)된 화엄(華嚴) 세계에서 중도(中道)의 삶을 향음(享音)하는 것을 득락(得樂)이라 한다.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이처럼 현 불가(佛家)의 해석과 달리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관심석(觀心釋)이 필자가 주창(主唱)하고 싶은 견해이다. 화엄(華嚴)은 잡화엄식(雜華嚴飾), 갖가지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됨을 말한다. 화(花)는 육안으로 보이는 꽃이고, 화(華)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꽃이다.

108번뇌를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난해한 중도의 정수(精髓)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등산에서 인간은 몸이 느끼는 세 가지의 감정이 있다.

산등성마루 걷기는 중도의 행복으로 (-)의 시간이 없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랐다면 즐길 수 없는 시간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상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은 중도를 잉태하는 시간이다. 한자로 '산등성마루'를 강(岡)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명 후쿠오카(福岡)는 '일상의 평지 보행의 행복', 시즈오카(靜岡)는 '고요한 산등성마루 걷기의 행복' 필자의 관심석(觀心釋)이다.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는 쓰임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 사용해야 뜻이 있다.

중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즐겨야 한다. 그리고 중도는 중간의 개념이 아니다. 우선 야구경기에서 10할의 절반인 5할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꿈의 타율이다. 보통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중간이 아닌 좋은 사람이다. 무더운 (+)의 여름을 거쳐야 중도(0)의 가을을 느낄 수 있으며 (-)의 혹독한 겨울 추위의 맛을 보아야 중도(0)의 봄을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중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알려지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있다. 음미하지 않은 인생은 헛되이 산 삶이라고 하였다. 중도의 영역인 '해피 미디엄(Happy medium)'은 절묘하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중도는 평범한 생활에서 발견한 보통의 맛을 음미하는 행복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도의 예이다.

시자(侍者)였던 아난(阿難)존자는 80세 고령의 붓다께서 열반에 드시게 될 듯 하자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여쭙는다. 붓다의 유훈(遺訓)에서 불교의 진수(眞髓)를 발견할 수 있다.

"너는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았느냐? 앞으로는 나의 설법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궁극에는 너의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여라."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 불교는 의자(依自) 종교이다. 불교는 붓다가 아닌 붓다의 말씀을 믿는 종교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분모(分母)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분자(分子)로 독창적인 세계를 이룬 불자를 작가(作家)라고 한다. 작가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연설(演說)처럼 불교에서 온 말이다. 나는 인도여행 중 야간열차를 기다리는 켄트역(驛) 구내의 아담한 책방에서 다음의 책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꿈속인 듯 황홀하였다. 어떻게 붓다의 정수(精髓)를 이처럼 번역할 수 있을까. 필자의 의역(意譯)이다.

'Meet yourself!(너의 진면목을 만나라!)'

오늘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 같은 행복론은 허다하다. 일상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곧 행복이라는 항다반사(恒茶飯事), 원(圓, 0)에 만족하는 삶이 원만(圓滿)한 인생 아닐까. 나는 잠시 작가 불자가 되어 다음의 명제(命題, proposition)를 지어 보았다. '천상천하(天上天下) your 독(獨) zone!' 나의 인생 후반기에 발견한 중도. 아! 중도여! 이제는 유레카(Eureka, 발견의 희열)를 노래하고 싶구나.〈끝〉

▲이규항 前 KBS아나운서 실장은?



서울 출생. 고려대 2학년 때 학년을 4학년으로 올려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규정에 어긋나 졸업하던 해 다시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야구, 씨름, 유도 전문 캐스터로 활동하며 35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봉직했다. 퇴직 후에는 일본 프로 야구의 주니치로 이적한 선동렬, 이종범, 이상훈 선수의 활약상을 중계했다. 저서로 〈부처님의 밥맛〉 〈0의 행복〉 〈한국어 발음사전〉 등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